

남구 ‘민원 현장 확인의 날’ 운영 주민 고충 해소

민선 8기 전반기 17차례 진행
김병내 청장, 월 1회 현장 소통
접수 민원 138건 중 96건 해결
“주민과 대화 통한 해법 모색”

광주 남구는 민원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실마리를 찾기 위해 민선 8기 전반기 2년여 동안 ‘민원 현장 확인의 날’을 17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원 현장 확인의 날 운영은 주민 소통과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김병내 남구청장은 매월 1차례씩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11일을 시작으로 올해 6월26일까지 2년여간 17차례 진행하며 현장 소통을 통해 생활 불편 사안

을 비롯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민원 현장 확인의 날 운영으로 접수된 민원 138건 중 해결되지 않은 27건에 대해선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해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로개설과 같은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3건은 해당 기관에 넘겨 관리하고 있으며, 12건은 안전상 문제와 사유재산 사용 승낙 등의 사유로 처리가 불가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유형별 현황을 보면 △도로건설 분야 32건 △생활환경 분야 30건 △교통 및 생활 안전 분야 23건 △보건복지 분야 20건 순이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주민들이 참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현장에서



김병내 남구청장이 지난 5월27일 ‘민선8기 제16차 민원현장 확인의 날’을 맞아 광주 남구 진월동 협진훼미리아파트 등 민원 현장 3개소를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남구 제공

적극 소통하고 있다”면서 “주민들께서도 감정과 고성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구는 9월23일에 민선 8기 후반

기 민원 현장 확인의 날 첫 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도 주민 고충과 숙원 해소를 위한 현장 발걸음을 이어간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맨발로 청춘학교 2기 운영
서구, 건강관리·환경교육 등

광주 서구가 10월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주민들의 맨발 걷기 생활화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맨발로 청춘학교’ 2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개강식에서는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사전검사 실시 후 정찬용 강사의 맨발걷기의 효과와 오수정 강사의 웰에이징 관리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서구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맨발걷기, 건강관리, 환경교육 등의 이론과정 △맨발로 현장실습 및 동호회 활동을 연계한 실습과정 △대한스포츠지도자협회 연계 맨발걷기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맨발걷기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강사를 활용해 내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방문형 맨발걷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맨발로 청춘학교 1기를 운영해 총 4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중 23명이 맨발 걷기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맨발로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올바른 걷기를 통해 건강을 찾아 활력 넘치는 인생 2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교육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찾아가는 치매 무료 검진’
남구, 관내 6개 동 순회 진료

광주 남구는 9월부터 거동 불편으로 치매 검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어르신을 위해 동별 찾아가는 무료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별 찾아가는 무료 검진 사업은 9월 2일부터 11월8일까지 관내 6개 동에서 진행되며 60세 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치매 진단을 받은 주민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동별 찾아가는 무료 검진을 통해 초기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조기 발견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전문인력 4명을 배치해 백운1·2동과 주월1·2동, 송암동, 대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기억력 검사를 비롯해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진단 및 감별 검사와 함께 검진비도 지원해 치매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별 방문 검사 일정은 남구 치매안심센터(062-607-4367, 062-607-4060)로 문의하면 되고 무료 검진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남구는 올해 상반기 동별 찾아가는 무료 검진을 통해 관내 어르신 108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1년간 어르신 2199명에게 무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찬 기자

솔로몬로파크 ‘달빛극장’ 운영
북구, 3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광주 북구가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광주 북구 문흥동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장 일대에서 ‘달빛극장’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달빛극장은 북구가 초등생을 자녀로 둔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체험과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해 여름밤 즐길거리를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천연세제 만들기 △머그컵 채색 △에코 북바인딩 △비즈 팔찌 만들기 △스포츠 활동 등 5개 체험 부스와 공연, 아트퍼포먼스 등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또 오후 7시30분부터는 지난 2019년 개봉됐던 ‘마이펫의 이중생활 2’가 야외 무대에서 무료로 상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순발력 봉 잡기, 추억의 오락실이 갖춰진 아케이드존과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동화나라 포토존이 제공될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

‘다국어교실’ 참여자 모집
광산구, 과정별 선착순 10명

광주 광산구는 이주 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소통을 돕기 위해 9월부터 야호 초록빛 새싹학교 ‘다국어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 외국인 주민 절반 이상이 광산구에 거주하면서 실제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한다. 광산구는 이런 상황에 이주 배경 청소년이 이중언어 능력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국어교실’을 마련했다.

다국어교실은 지역 초·중학생 및 이주 배경·다문화가정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의 과정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기초 문해교육과 문화·예술 놀이로 구성했다.

중국어교실과 베트남어 교실은 9월3일부터 11월14일까지 진행하며, 러시아어 교실은 9월4일부터 11월15일까지다. 다국어교실은 교실별 선착순 10명 모집하며, 네이버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다국어교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교육도서관(062-960-39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 삼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푸드트럭 치킨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산구 삼도동, ‘치킨 나눔’ 호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일환

“오매. 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앞에 웬 푸드트럭이여? 치킨(닭튀김)을 다 나눠주고. 오늘이 잔치날이네.”

가을이 오는 길목인 처서인 지난 22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 푸드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맛있는 냄새와 함께 닭을 튀기기 시작하자 주위에선 튀겨진 닭을 정성스레 상자에 담는다.

두 손 가득 치킨이 든 가방을 들고 경로당으로 향하는 분주한 걸음들. 곧 따뜻한 온기 가득한 치킨 상자를 받아 든 어르신들이 활짝 웃으며 말한다. “덕분에 포식

하겠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나타난 푸드트럭은 삼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삼도동은 광산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으로 식당, 마트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삼도동 지사협은 이런 지역 특성으로 인해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푸드트럭은 지난 5월 ‘어르신을 위한 이동 슈퍼’인 만물트럭, 찾아가는 한방진료실에 이은 세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

스로, 올해 마을복지건강계획 중 ‘복지의 제’의 하나인 ‘경로당 치킨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삼도동 지사협은 이날 푸드트럭에서 조리한 치킨 100세트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 인쇄물과 함께 포장해 마을별 경로당,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주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광산구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보건소, 병원 등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송영종 삼도동 지사협 위원장은 “푸드트럭으로 경로당 어르신, 이웃들에게 치킨을 전달해 드리니 너무 좋아하셔서 지사협 위원들도 뿌듯해 했다”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동구,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독거 어르신 목숨 구해

올해만 세 차례 구조

광주 동구는 위급 상황에 처한 독거 어르신을 구조해 병원에 연계한 데 이어 최근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는 한 독거 어르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충장동에서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A씨는 평소 고혈압·당뇨·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상생활(재

가) 지원을 받던 중 신규 제공기관을 찾고 있어 돌봄 공백이 생겼다.

동구는 이 기간 동안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을 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가구를 방문했다. 하지만 인기척이 없어 위기 상황을 감지, 공장 119에 신고해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현재 치료 후 회복 중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틈새 없는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올해만 벌써 3번째 위기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의 목숨을 구하는 등 최근까지 743명에게 1270건의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